

■ 광주시립미술관 '중외공인 시대' 1주년 ㉔ 과제

관람객 눈 확~ 사로잡을 수준 높은 '명작' 전시를



광주시립미술관이 '생활속의 미술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관람객들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기획전과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지난 6월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열렸던 '2008 올해의 작가 오승운'전 모습. <광주일보 자료>

주5일 근무제가 자리를 잡으면서 국내 국·공립 미술관들은 관람객들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또 미술관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대안적 소장품 구입과 작품 기증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광주시립미술관(관장 박지택·이하 시립미술관)은 전문 인력 부족으로 관람객을 사로잡을 만한 이색 프로그램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소장품도 지역 작가 위주의 작품 구입에만 머물고 있어 수준높은 국·내외 유명 작가의 작품이나, 명품 구입을 사실상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9월 현재 시립미술관 관람객은 20만8천명으로 지난해 전체 관람객인 7만3천여명을 크게 웃돌고 있다. 올해 개관 10주년을 맞은 부산시립미술관의 지난해

총 관람객이 40여만명이었다. 관람객 수만 놓고 부산시립미술관과 비교해 볼 때, 이제 개관 1주년을 맞은 시립미술관이 절반의 성공은 거둔 셈이다.

하지만 속 사정을 들여다 보면 성공이라고 하기에 미흡하다. 시립미술관 평

943명 중 52%인 494명이 루벤스전을 보기 위해 처음으로 광주시립미술관을 찾았다고 답했다. 이는 기획전시가 열리지 않는 기간에는 눈길을 끌 만한 프로그램이 없

다양한 기획전·프로그램 활성화 국내외 유명작 구입 적극 나서야

일 평균 관람객은 50~500여명 수준. 올해 9월까지 관람객 20만8천명 가운데 '루벤스 바로크 걸작'전에만 5만여 명이 몰렸다. 실제 시립미술관이 지난 7월31일~8월19일까지 관람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고, 볼 만한 소장품도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시립미술관은 어린이미술관, 창작체험관과 도예실, 문화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참가자는 2천여명 안팎에 머물고 있다.

해마다 지역작가들의 작품을 우선 구입하고 있는 소장품 선정과 소극적인 기증작품 유치도 문제다. 시립미술관은 지난 2005년부터 창작 지원을 위해 미술품 총구입비 2~3억원 중 80%가량을 지역 작가들에게 집중투입하는 바랍에 '지역작품 수장고'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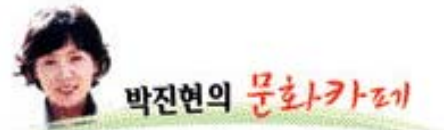
또 부산시립미술관이 올 상반기 지역작가와 화랑 관계자 등 4명으로부터 국·내외 작품 167점을 기증받았지만, 시립미술관은 같은 기간 단 한 점도 기증받지 못했다. 그나마 시립미술관이 그동안 기증받은 1천865점도 모두 재일교포 하정웅씨가 기증한 컬렉션이다.

이밖에 시립미술관의 출입구인 ▲중

외공원 정문 ▲비엔날레전시관 ▲민속박물관 쪽 골짜기 등의 접근성이 떨어져 관람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점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또 양산동·팔각정 스튜디오의 시설 확충과 입주작가들의 전시회를 지원하고, 작품 프레젠테이션 등을 도울 수 있는 전담 매니저 선임 등도 풀어야 할 숙제다.

시립미술관의 관계자는 "수준 높은 소장품 구입과 프로그램 마련을 위해 전문가 의견을 모으고 있다"며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인력 확충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복기자 kroh@kwangju.co.kr



블랙먼데이와 뮤지컬

1987년 10월19일 월요일. 뉴욕 링컨센터의 수석연출가인 버너드 거스틴(Bernard Gersten)은 하루 종일 담배를 물고 살았다. 이날은 미다우시 수 사상 유례없는 22.6%의 폭락장을 기록한 '블랙먼데이'. 월스트리트의 증권맨도 비즈니스맨도 아니었지만 거스틴의 가슴은 이를 보다 더 시커멓게 타들어갔다.

이유는 뮤지컬 '에니싱 고스(Anything goes·무엇이든지 된다)' 때문이었다. 거스틴은 1934년 큰 인기를 끌었던 '에니싱 고스'를 다시 무대에 올리기 위해 10월 19일 초연을 목표로 3년 전부터 준비해왔다. 1934년 전 세계를 휩쓴 대공황의 한복판에서 탄생한 '에니싱 고스'는 뉴욕에서 런던으로 향하는 초호화 여객선 'S.S American'을 배경으로 승객들의 유쾌한 해프닝을 담은 코믹 뮤지컬. 1934년 대공황때에도 무려 450차례나 공연된 '통탄 뮤지컬'이었다.

그런데 청천벽력과 같은 증시폭락으로 오랫동안 공들여온 뮤지컬이 간판을 내려야 할 처지에 몰린 것이다. 수많은 실직자가 거리로 쏟아지는 판에 한가하게 뮤지컬이 아니라, '브로드웨이의 미드스'인 거스틴이 머리를 굴려봐도 '폭박 공연'을 피하기 힘들었다.

하지만 '에니싱 고스'는 예상을 깨고 대박을 냈다. 첫 공연이 열린 링컨센터 부설 비비안 버몬트(Vivian Beaumont)극장은 개막 1시간 전부터 밀려드는 관객들로 붐볐다. 총 1천84개의 전 좌석은 공연기간 1년 내내 매진사례를 기록했다. 당장 끼니를 걱정해야 했지만 뉴욕시민들은 주린 배를 달래며 티켓부스로 향했다.

최근 미국 월가를 흔들고 있는 금융위기로 자선단체와 비영리 문화재단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특히 뉴욕현대미술관이나 링컨센터 등은 흑역사 기업으로의 후원이 줄어들지 않을까 애를 태우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기우로 끝날 것 같다. 메릴린치 증권을 인수한 '뱅크 오브 아메리카(Bank of America)'는 "기부는 그 어떤 것보다 우선하는 명예로운 위업(honoring commitment)"이라며 메릴린치의 뒤를 잇겠다고 약속했다.

기금모금의 귀재이자 '펀드레이징을 위한 핵심가이드(Your's for the Asking: An Indispensable Guide to Fundraising and Management)'의 저자인 레이놀드 레비(Reynold Levy)에 따르면 지난 50년대 이후 수차례의 불경기 속에서도 미국 기업들의 기부는 평균 1% 감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아이리니컬 하게도 미국발(發) 금융위기가 국내 문화예술계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 크고 작은 공연행사를 후원해 왔던 유수기업들이 경기침체를 이유로 마치 기다렸다는 듯(?) 예정된 후원을 '없었던 일'로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부 공연장과 전시장은 관객들의 발길이 부족 줄어 개점휴업이나 마찬가지다. 1987년 한편의 뮤지컬을 보며 10월 블랙먼데이의 암울한 밤을 달래던 뉴욕커들의 여유가 새삼 부러운 요즘이다. <문화활동부장 jhpark@kwangju.co.kr>

“파격적인 사랑...사회적 논의 기대”

'아내가 결혼했다' 광주일보 애독자 초청 시사회

광주일보사가 애독자들을 초청해 마련한 영화 '아내가 결혼했다'(23일 개봉) 시사회가 18일 광주 콜롬비아시네마에서 열렸다. '아내가 결혼했다'는 2명의 남편을 갖고 있는 여주인공이 등장하는 다소 파격적인 작품. 이날 영화 상영 후에는 원작자인 박현욱 작가와 정운수 감독이 함께 하는 '관객과의 대화' 시간도 마련됐다.

-일체다부리는 파격적인 소재를 다뤘는데

▲박현욱(이하 박)=이번 소설에서는 일반적인 사랑과는 조금 다른 사랑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 사랑이 조금은 가벼운 연애 과정을 넘어 제도화된 결혼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그리고 싶었다. "다른 것"에 대해 무조건 "틀렸다"고 징계할 게 아니라 한번쯤 생각하게 만들고 싶었다. 축구 이야기 많이 나오는 건 일체다부제가 갖는 비현실감을 희석시키기 위한 장치다.

-영화는 대중적인 매체인데 파급 효과가 우려되지는 않나

▲정운수(이하 정)=소설을 아주 유쾌하게 읽었다. 무엇보다 폼 잡고 이야기하

는 거대 담론이 아니라 재미있게 풀어낸 게 마음에 들었다. 위치 바꾸기라고나 할까. 한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 다른 시각을 갖게 하는 것에 관심이 갔다. 사회적 논의나 파장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다(웃음). 나도 두명의 남편과 아내를 두겠다는 게 아니라 나와 다름에 대해 유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과정들 말이다. 60여명의 인구가 다 다른 사랑을 하고 있지 않다.

-원작의 파격적인 내용상 스타 캐스팅이 쉽지 않았을텐데

▲정=책에서는 인물과 상황을 설명하는 부분이 많지만 상업 영화에서 그 부분을 다 이야기하자면 또 한편의 영화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출연배우가 중요했다. 잘못하면 미친 여자 취급을 받으니까. 한 눈에 반할 수 있는 느낌, 감정적으로 이 미지가 동화될 수 있는 인물은 손에 잡혔다. 사랑 앞에 솔직해서 제질한 모습을 보이는 덕후 역에도 김주혁이 딱이었다.

-원작자 입장에서 본 영화는 어땠나.

▲박=원작자는 영화가 아무리 잘 만들



18일 콜롬비아 시네마에서 열린 '아내가 결혼했다' 시사회에서 정운수 감독(왼쪽)과 박현욱 작가가 관객과의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어졌다고도 불만족스럽다(웃음). 하지만 장르가 달라 새로운 언어로 만들어내는 거니까 이해를 하는 거지. 영화 첫부분 축구 경기장의 모습이 바로 일상으로 넘어가는 장면은 영상 언어의 힘이 느껴지더라. 스페인 축구 경기장에서 4명의 가족이 10만명의 축구팬들과 일체감을 느끼는 장

면도 좋았다. 책에서는 성(姓)이 가장장적 상징이다 싫어 인어의 성이 없는데 '씨'라 성을 써서 '주인아씨'로 만드는 말장난도 재미있었다. 미셀 플라티니를 '미라'로 만든 부분이나 섹스에 대해 대화하며 '사랑'을 언급하는 장면도 좋았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김정아 피아노독주회 21일 목포문예회관



김정아 <사진> 피아노독주회가 21일 오후 7시30분 목포문예회관 공연장에서 열린다.

김 씨는 이번 연주회에서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KV 330 C장조', 슈베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D959 A장조'를 들려준다.

또 같은 음악의 길을 걷고 있는 남편 김진철(광주대 겸임교수)씨가 작곡한 '아리랑 주제에 의한 6개의 변주곡'도 선사한다.

이화여대와 오스트리아 빈 시립음악원, 독일 라이프치히 국립음대에서 수학한 김씨는 현재 광주대 음악학부 교수로 재직중이며 광주피아노아카데미, 광주듀오협회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김 씨는 올 5월 헬리스트 김창현씨와 '베토벤 첼로 소나타 전국 연주회'를 열어 관심을 모았다. 문의 017-331-6834.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수원지구

- ◎아파트 분양권 전문
- ◎택지 및 상업지역 토지 전문

【토지중개】

▶수원지구 택지 및 상업지역 최대 물량 확보

【아파트 중개】(신속처리)

▶우미, 모아, 현진, 코오름, 대주 등 분양권 물건 최대 확보

【공장】

▶전남 함평군 나산면 국도점 대지(공장지): 1030 건물: 320평 용지2억 실투자액 1억5000만원

【수원지구 송원빌딩 임대 11월준공】

▶1층 12평~40평 3.3㎡ 당 1500만원
▶부동산 판매시설 2층~5층 각 42평 용도:병원, 학원, 독서실, 당구장 등(분할가능) 3.3㎡당 250만원 부터~

정직한 중개문화를 선도하는
월드공인중개사사무소
☎ 062) 952-0047, 954-0031

프랑스 원목가구 50% ▶

플러그 가구 FOLDER
식탁과 테이블을 하나로 접을수 있는 가구(30종류)



서재가구 LIBRARY
컴퓨터 책상, 책장, 학생용·중역용 80종류



100% 친환경원목 뿔뿔,안,밑면까지 모두 원목사용 플러그가구,서재,주방,침실가구 1500 아이벡 독성을 방출하여 암발생, 아토피를 유발하는 베니어, 엠디에프 같은 화학나무를 단 1%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한국총판 런칭 기념으로 50%파격세일!! 10월 3일 신상품 전일

이태리 앤틱, 클래식가구 50% ▶

앤틱가구 ANTIQUE



클래식가구 CLASSIC



(주)홍스페이스 가구 빌딩

광주광역시 동구 장동로터리(구도형 역) 062) 226-7565~7

100% MADE IN ITALY 홍스페이스는 호남유일의 이태리가구 직수입 전문점입니다. www.hongspace.kr

시중 앤틱 클래식가구 98%는 중국산입니다.

지하1.2층 : 365일 50% 세일가구 1.2층 : 오리지널 이태리가구 3.4층 : 친환경 원목가구 5층 : 소파 할인매장